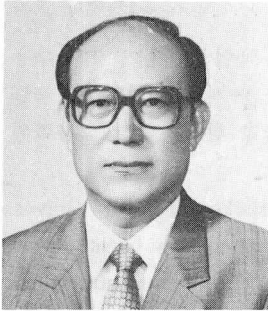


氣 論 片 片

—— 氣와 宇宙自然,
그리고 人間 ——

李 賢 宰



우리가 평소에 무심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서 “氣”라는 말처럼 신비스런 그 무엇과 餘韻을 함께 담고 있는 말도 썩 드물 것이다.

기가 난다, 기가 세다, 기편다, 기꺾는다, 기막히다, 기죽인다, 기쓰고 덤빈다 등은 氣라는 文字가 홀로 쓰여지는 경우이지만 앞뒤에 다른글자나 딴 말이 붙어서 熟語化된 말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기운이 세다, 기분이 좋다, 기승을 부린다, 기절했다, 기고만장하다, 기세등등하다, 기진맥진하다, 이렇듯 우리말은 온통 氣투성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이다.

空氣 大氣 蒸氣 天氣 化氣 生氣 精氣 元氣 血氣 理氣 正氣 邪氣 毒氣 殺氣 人氣 民氣 德氣 王氣 和氣 同氣 士氣 志氣 俠氣 客氣 傲氣 驚氣 風氣 寒氣 熱氣 燥氣 溫氣 濕氣 水氣 火氣 磁氣 穀氣 心氣 意氣 神氣 義氣 靈氣 氣候 氣溫 氣流 氣壓 氣象 氣化 氣體 氣海 氣道 氣脈 氣味 氣息 氣根 氣孔 氣魄 氣慨 氣品 氣色 氣質 氣風 氣像 氣性 氣合 氣乏 氣陷 氣焰 氣銳 氣運 이밖에도 氣力과 精神을 氣神이라고 하고 氣風과 習慣은 氣習이라하며 氣慨와 度量을 氣宇라 한다. 두려워서 의기가 움추러드는 것은 氣縮이며 타고난 天賦의 氣性を 氣稟이라하고 동물의 몸에서 순환되는 기운을 氣度라 한다. 썩썩한 義氣를 간직한 뼈대있는 선비를 氣骨之士로 존경하였고 의기당당하여 세상을 압도함을 氣蓋世라하니 史記의 項羽本記에 나오는 말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히 차서 온갖 萬物이 나고 자라며 살아움직이는 힘의 根源을 氣라고 여긴 우리 先人들은 한편으로는 氣息 즉 呼吸 자체가 原初적인 氣라고 이해하였으며 사람뿐 아니라 모든 生物은

끊임없는 호흡에 의해 生命이 유지되는 것이니 결국 몸속으로 드나드는 空氣의 유동과 순환에 의한 심장의 鼓動, 그것을 生命Energy로서의 氣의 활동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宇宙天地에 充滿한 氣를 小宇宙인 사람에게 끌어 들여 天地人三才로 一體되게 하는 作用, 그것이 바로 呼吸이라는 것이다. 사람의 生命이 다한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의 拍動이 정지해버린 상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精子が 母體에 孕胎하여 3週日이 지나면 胎兒는 約1cm크기 1g 무게의 肉片이며 가느다란 血管같은 것이 생기고 4週째되면 돌연 그 肉片이 拍動을 시작한다고 한다. 이 拍動을 처음에 리드하는 역할은 신기하게도 母體의 호흡과 고동이라는 것이다. 母體의 박동에 이끌리어 고동치기 시작한 손톱크기만큼의 生命의 살덩어리는 그때부터 獨自인 박동의 리듬(母體의 것보다는 빠른)을 갖게 된다는 것이니 사람마다 가슴에 뛰고 있는 박동은 그대로 어머니 가슴에 났 박동의 延長線上에 있는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를 낳은 어머니의 박동은 또 그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것이니 이렇게 거슬러올라갈 때 우리들 가슴의 박동은 실로 인간의 太初에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아득한 옛날 인류가 生成한 후 一時一刻도 쉬지않고 박동하여 子子孫孫으로 계승된 가슴속의 鼓動—— 이것이야말로 바로 祖上代대로 물려내려오는 連綿한 氣의 흐름이 아니겠는가.

한편 인간의 모든 活動을 컨트롤하는 마음의 機能도 一種의 氣로 보고 心氣, 意氣, 神氣등으로 불리워졌거니와 精神과 肉體간에 非物質的인 相互作用

用이 神妙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現代科學으로 續續 解明되기에 이르렀다.

例컨대 平靜할때와 怒했을때 흘리는 땀은 그 反應이 서로 다르다. 성냈을때의 땀은 酸性이 強하며 땀의 化學的 分析表를 통해 情緒狀態를 알수 있다는 것이다.

液體空氣로 冷却한 glass管속에 숨을 토해넣으면 숨속의 揮發性物質이 無色에 가까운 액체가 되는데 만약 그 사람이 심하게 화를내면 조금뒤에는 검붉은 암색 gas로 변하며 이것을 實驗用쥐에 注射하면 금방 興奮狀態가 되고 심하면 數分뒤에 죽고 만다는 것이다. 1시간동안의 극심한 憤怒와 憎惡感속에 내뿜은 숨에서는 80명의 人命을 죽일수있는 毒素가 나온다고하며 이 猛毒이 自己體內에 鬱積하면 결국 그 사람은 惡性疾病을 앓게되고 죽음에까지 이를수도 있다는 것이다.

“毒氣를 내뿜는다” “毒氣서린 눈초리다” 등의 말이 결코 허튼말이 아님을 立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

성을 내면 얼굴이 붉어지고 땀이 난다거나, 극도의 苦痛과 悲哀를 겪은끝에 갑자기 白髮이 되어버린 경우등도 모두가 氣의 生理作用을 보여주는 증거다.

心氣에 즐거움과 기쁨, 감사와 愛情, 그리고 審美的感情에 젖어있을때, 바꾸어말해서 和氣에 찻을때의 숨결은 깨끗한 빛으로 液化된다는것. 이 모두가 氣의 所致라는 것이다.

東洋傳來의 養生法이 이른바 練氣, 氣功으로 根本을 삼는 까닭을 조금은 알법도 하다. 中國에서 가장 오래된 醫書인 “黃帝內經”에는 “精神을 無欲淸淨으로 이끌어야하며 그리하면 眞氣(純正한 精氣)가 스스로 確保되어 病이 敢히 침입할수 없다. 呼吸으로 精氣를 길르고 意識을 調整하면 無我的 경지에 到達하여 心身合一의 상태가 된다”고 하였다. 眞氣는 正氣라고도 하였는데 이는 先天의 氣인 元氣와 飲食에서 얻은 後天의 氣가 합해서 이룩되는 生命Energy라 할수 있을 것이다.

氣를 바르게 섭취하고 섭취한 氣를 몸안에서 바르게 돌리는 방법이 導引, 導氣이며 氣功法의 뿌리다.

最近 中國에서는 醫家, 道家, 儒家, 佛家에 의해

傳授되어온 각종 養生法을 現代醫學과 科學에 융합시켜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서 氣功療法이라는 이름아래 全人民에게 臨床實驗하고 있는바 놀라운 效能과 함께 그 人氣가 대단하다고 한다.

東洋의 傳統醫學은 疾病 그 자체를 體內的 氣의 均衡에 異常이 생긴 상태로 해석하며 血氣不和가 萬病의 원인이라는 發想에서 出發한다. 이와같은 생각은 秦나라때 呂不韋가 賓客 3천명을 모아서 편찬했다는 呂氏春秋에 記述된 氣論에 자못 具體적으로 表現되어 있다.

그 일부를 간추려보면 『흐르는 물은 썩는일이 없고 門쪽의 돌쩌귀 부분은 벌레가 먹지않는다. 항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신체를 움직이지 않으면 精이 흐르지 않는다. 精이 흐르지않으면 氣가 막히게 된다. 막힌 氣가 머리로 가면 腫瘍이나 風病이 된다.

귀에서 막히면 귀머거리가 되기도 하며 눈에서 막히면 눈병을 앓아 장님이 되기도 한다. 배로 가서 막히면 배가 부풀어올라 氣脹이 되거나 痔疾이 된다. 발에서 막히면 질름발이가 된다.

精氣와 血氣는 항상 몸안을 流通하여 生命을 유지시키기에 그 流通이 阻害되면 病이 발생한다. 血脈은 그 “通”을 바라고 精氣는 그 “行”을 바란다』

이렇듯 氣의 막힘이 모든 病을 부른다는 것이 醫家의 一貫된 認識이었던 것이다.

이에 比해 道家에서는 氣를 모으는것을 더 重要視하였다. 老子는 “氣를 한데 모아 柔軟性的의 極致를 이루어 갓난아이처럼 될수 없을까? 할 정도로 氣의 聚合과 保全을 力說하였던 것이다. <專氣致柔, 能嬰兒乎>(老子第十章 中)

老子의 思想을 基礎로 그것을 더욱 發展시킨 莊子도 “사람의 出生은 氣의 모임이다. 氣가 모이면 삶이되고 氣가 흩어지면 죽음이 된다. 그러므로 天下를 통해서 오직 一氣뿐이다”하여 氣의 취합과 함께 氣一元論의인 世界觀을 내세웠다. <人之生 氣之聚也 聚則爲生 散則爲死 故曰 通天一氣耳>

孔子가 氣에 대해 뚜렷하게 밝힌것으로는 論語季氏篇에 나오는 血氣에 관해서이다. 人間의 生理기능으로서의 血氣의 出典으로는 가장 最初라 할수 있는 것이기에 注目을 끈다.

“君子에게는 세가지 경계해야 할 일이 있으니 淵

올때는 血氣가 安定되지 못했으므로 女色을 경계해야하고 壯年에 이르면 血氣가 강함으로 鬪爭을 경계해야 하며 老年에 이르면 血氣가 이미 쇠약해졌으므로 담욕을 경계해야 한다.”〈君子有三戒 少之時血氣未定 戒之在色 及其壯也 血氣方剛 戒之在鬪 及其老也 血氣既衰 戒之在得〉

孔子的 氣에 비하면 思想的으로 한층 무게를 더한 氣가 孟子的 유명한 “浩然之氣”이다. “무엇이 浩然之氣입니까?”라는 弟子 公孫丑의 물음에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 氣는 지극히 크고 지극히 굳센 것이니 곧게 간직하고 길러서 해치지 않으면 天地사이에 가득차게 된다.

그 氣는 道義와 配合되는 것으로 이것이 없으면 허탈해진다. 이것은 義로 모여서 生成해가는 것이다.”라는 대답이었다.〈其爲氣也 至大至剛 以道義而無害 則塞于天地之間, 其爲氣也 配義與道無是餒也 其集義所生者〉

孟子가 追究한 浩然之氣는 直心과 道義를 지탱하는 眞實이며 그러기에 至大至剛한것, 또한 義理 人道와 더불어 培養하여야 하는것으로 이것이 없으면 人間으로서 無氣力者라는 것이다.

浩然之氣와 함께 또 하나의 高尚하고 玄妙한 氣를 내세운다면 이른바 ‘書卷氣’일 것이다. 우리나라 書法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秋史 金正喜의 隸書論 한토막은 그런면에서 껍이나 숨췌이 깊다.

“隸書는 곧 書法의 祖家인만큼 만약 書道에 뜻을 가질진대 반드시 隸書를 몰라서는 아니될것이요, 隸法은 반드시 力勁과 古拙로서 上品을 삼아야 할 것이다. 漢隸의 奧妙함은 오로지 拙함에 있음이요 또 隸法은 胸中에 淸高古稚의氣가 없다면 붓을 잡을 필요가 없다. 胸中의 古稚淸高한 뜻은 胸中에 文字香과 書卷氣가 없다면 팔목과 손가락끝으로는 도저히 나타내지 못한다”. 一言以蔽之하여 氣의 藝術을 闡明한 것이다.

唐나라 中期의 天才文人 韓退之는 文學에 있어서의 文章의 氣를 물(水)에 비유하고 있다. “氣는 물이다. 文章의 말(辭)은 거기에 뜨는 物體다. 물이 넓고 깊으면 큰것도 작은것도 모두 뜬다. 氣와 글의 관계도 이와같다. 氣가 왕성하면 말의 高低長短도 모두 좋게 이루어진다.” 韓愈는 이렇게 說破하며 氣를 꾸준히 기를것을 강조하고 있다.

養氣의 方法으로는 첫째 仁義의 道를 닦을것, 둘

째 詩經, 書經등 文學의 淵源을 깊이 맛보고 鑑賞하는 것이 그 基本이라 하였다.

宇宙의 형성 구조 運行에 관한 宇宙觀으로부터 哲學 天文 地理 醫學 養生 藝術 武術 심지어 風水說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傳統思想과 學問 그리고 生活領域에 氣가 미치지 않는곳이 없는것을 볼때 氣의 比重과 役割이 어땠는가를 어렵곳이나마 짐작할만도 하다.

요컨대 自然現象界에서의 一切의 存在와 機能의 始原을 氣로 상정하고 氣의 응집과 확산이 거듭되는 가운데 自然界와 사람사이의 리듬의 調和, 그리고 우리들 身體에서의 氣血의 調和를 어떻게 이루느냐에 그 根源이 있는것같다.

現代의 科學思潮가 合理性 客觀性을 尊重하는 나머지 人間の 感性과 經驗을 가볍게 여기고 오직 分科와 細分化로 흐르며 全體를 보지못하는 偏向을 反省한 一團의 西洋學者들이 新科學運動(New Age Science Movement)의 旗幟아래 새바람을 일으키기 시작한지 이미 오래이고 스위스聯邦政府體育大學에서는 1975年 以來로 生理學 生物學 心理學 社會學등 多方面에 걸쳐 氣功에 관한 종합적 研究를 계속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1976년부터 Bio feed back(生體綜合作用?)이라는 雜誌가 발간되기도 하고 유럽및 남북아메리카 各國에서는 氣功學術團體가 發足하여 활발한 研究를 進行중이라 한다.

또한 東洋傳統醫學에 대한 現代의 分析도 꾸준히 계속되어 氣의 通路로 알려저은 人體의 經絡이 電氣生理學의 手法에 의해 그 實在가 證明되기에 이르렀다한다. 여태까지 일반대중에게는 침놓고 뜸뜨는 자리쯤으로 이해되어온 우리 온몸에 뻗친 經絡이란 것이 實인즉 人間の 心理作用과 生理作用을 統合하는 高次的이고 未分化된 身體“시스템”인 것이라고 日本의 氣學者 丸山敏秋氏는 斷言하다싶이 한다.

氣라는 不可思議한 概念——그 보이지않는 實體와 秩序, 그럼에도 불구하고 生命Energy로서 분명 우리 體內에 가동하고 있는 氣의 正體가 밝혀지는 날, 大宇宙의 神秘도 함께 그 베일(veil)을 벗게되는 것이 아닐까……

[筆者: 本會理事·前國會議員·初代國立公園委員]